

국내 벤처기업 성장세...광주·전남 기업은 감소

중기부 실태조사, 매출·투자 등 증가로 수도권 밀집화 지역 소재 기업, 전국 3%대 불과...“지역 불균형 우려”

국내 벤처기업이 최근 4년간 매출과 연구개발(R&D)·투자·수익성 지표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기술·투자 중심 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소재 기업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기준 벤처확인기업 3만8216개사와 소선펠벤처기업

3259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 등을 분석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수는 3만8216개사, 총 매출액은 236조원으로 집계됐다. 벤처기업 수는 지난해 대비 1865개사 감소했지만, 총 매출액은 236조원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이 소재한 벤처기업 소재지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벤처

생태계의 지역 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202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 뿌리를 둔 벤처기업의 소재지 비율은 전국에서 2.1%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0.3%p 감소한 1.8%에 그쳤다.

전남 역시 마찬가지로의 상황이다. 전남은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 중 2.2%의 기업을 유지했지만 올해 광주와 마찬가지로 0.3%p 감소한 1.9%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3.2%p 상승세를 보여 벤처기업의 수도권 밀집화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광주에서 벤처기업

을 운영하고 있는 서모씨(46)는 “광주나 전남이 타지역권에 비해 지원사업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하지만 최근 AI 산업으로 기업이 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반 사업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서씨는 “특히 올해 전남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유치되면서 전남으로 가는 기업은 늘어날까 싶지만, 광주에서는 벤처기업의 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역 내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국내 벤처기업은 최근 4년간 매출과 기술 자산, 수출, 연구개발(R&D) 전반적인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구조적 내실을 다지고 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66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000만원 증가했으며, 외형 확대와 함께 수익성 지표도 개선됐다. 벤처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4000만원으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고용 지표에서는 벤처기업의 존재감이 더욱 뚜렷했다. 2024년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82만83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 상시 근로자 수(약 74만6000명)를 8만명 이상 웃도는 규모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벤처기업이 더 이상 일부 혁신기업 집단이 아니라, 국내 고용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경제 주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기술혁신 지표에서도 벤처기업의 특성

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율은 6.5%로, 일반 중소기업(0.8%)의 8배를 웃돌았다. 대기업(1.9%), 중견기업(1.2%)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당 평균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보다 1.1건 늘었으며 이는 기술 축적과 특허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 활성화, 스케일업 지원, 인재 보상 체계 개선,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이 유니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쿠팡 보상안 발표했지만 쿠팡이 30~31일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태 이후 한 달 만인 전날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사과문을 내놓고 하루 만에 보상안을 공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경영진의 진정성과 보상안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사진은 2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 모습. 연합뉴스

GGM 내년 생산 물량 6만1200대...2교대 전환 무산

100억 투입 설비 증설...시간당 26.7대→29.6대 생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내년 생산 물량이 6만여대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2교대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

29일 GGM에 따르면 내년 생산 물량은 캐스퍼 EV 4만8622대, 캐스퍼 가솔린 9778대 등 올해 5만8400대보다 4.8%(2800대) 증가한 6만1200대로 결정됐다.

2교대로 전환하려면 8만대 이상을 생산해야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추가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설립 목표였던 연 10만대 생산과 2교대 전환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다만 생산설비를 확대해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릴 방침이다.

GGM은 100억원을 투입해 차체 생산 설비 로봇 등을 증설하고 시간당 생산 대수

를 26.7대에서 29.6대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생산 공정을 일시 중단하고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윤종현 GGM 대표이사는 “2교대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으나 생산량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동차 시장의 대내외의 여건 변수가 크지만, 목표 생산량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자금사정 악화”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이용·애로실태 조사 판매 부진·원자재값 상승 직격·대출금리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자금사정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올해 자금사정을 묻는 말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0.0%로, ‘호전됐다’(13.2%)는 응답의 3배 가량이나 됐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올해 자금사정이 ‘작년과 비슷하다’(46.8%)고 밝혔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중소기업들은 ‘판매부진’(59.0%)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51.5%)’을 주로 꼽았다.

올해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40.4%로 조사됐다.

외부자금의 사용처(복수응답)는 ‘구매대금 지급’이 70.3%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지급(53.5%)’, ‘기존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30.2%)’ 순이었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겪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높은 대출금리’(73.6%)를 가장 많이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 관련 희망사항(복수응답)으로 ‘대출금리 인하(79.6%)’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

(복수응답)을 묻는 말에도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가 38.8%로 가장 많아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여전히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전반적 차입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이 37.0%로, 지난해 같은 조사의 응답률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51.4%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도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나 나타나 여전히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중흥장학회, 14년째 이어온 인재육성 사업 ‘눈길’

광주지역 고교생 188명에 장학금 1억8800만원 전달

중흥그룹의 장학재단인 중흥장학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이어갔다.

중흥장학회는 최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광주시교육청과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4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참석이 가능한 고등학생과 인솔 교사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중흥장학회는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188명의 학생에게 총 1억8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중흥그룹은 매년 12월 말 장학회를 통해



중흥장학회는 최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광주시교육청과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4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14년째 장학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 협력업체 포상, 협력업체 임직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급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효율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대선소방설비사업
(주)대선이엔지
(자)대선산업개발

(주)일등소방
(주)유덕전기소방공사
(주)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9
Tel : 062-381-7119